



# 손지



몇 번을 망설였다. 시집 한 권을 사다가 은행에서 미리 교환한 뺏뻣한 신권을 넣은 두툼한 봉투를 책갈피처럼 끼워 넣고 포장을 했다가 다시 뜯었다. 표시나지 않게 봉투를 전달할 방법을 고심하였다. 동네 제과점으로 가서 케이크를 사와서 박스 안에 봉투를 살짝 밀어 넣어 보았다. 불룩 튀어나온 겉모양이 마음에 걸려 다시 꺼내고 말았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 보아도 영 마뜩치가 않았다. 내키지도 않았다. 아이의 반학부모 모임에서 스승의 날에 선물비를 걷자는 제안에도 선생님께 누가 되는 일이라며 당당히 거절했던 나였다. 하지만 막상 내 아이 문제에 부닥치니 객관성을 잃었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게 엄마라는 유약한 이름 때문이었으리라.

결국 다시 정성을 들여 표 나지 않게 시집 사이에 간단한 메모를 첨부한 봉투를 넣고 처음의 계획대로 포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서둘렀는데도 어느 새 상담시간에 임박해 헐레벌떡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어수선하기만 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시집을 넣어둔 백으로 자꾸만 손이 갔다. 꼭 이래야만 하나? 자문과 자책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선생님께 슬그머니 시집을 내미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마치 예행연습이라도 하듯이…….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고 올까, 책꽂이에 몰래 꽂아놓고 올까, 가슴에 와 닿는 시가 있어 한 번 읽어보시라고 사왔다는 사족을 달까, 오만가지 생각이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과학고를 보낼 생각입니다. 이번 수학경시대회 때 꼭 좀 잘 쟁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인 내가 보기엔 아이는 수학성적이 꽤 우수한 편이다.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성적이었음에도 학교에서 대표로 추천하는 전국 규모의 수학경시대회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다. 과학고에 진학하려면 꼭 필요한 이력이었기에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속이 많이 상했다. 추천이 공정하지 않은 것만 같았다. 혼자 속을 태우다 학교 어머니회에서 만난 치맛바람 꽈나 날린다는 학부모 한 분께 넋두리를 했더니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시집을 준비한 것이었다. 상담을 끝내고 시집을 내미는 순간 가슴이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고 또 망설였지만 아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말도 안 되는 위안을 하며 선생님의 책상위에 포장된 시집을 내밀며 오기 전에 몇 번 연습한 대로 말했다.

“가슴에 와 닿는 좋은 시가 있어 시집 한 권 사왔어요. 시간 날 때 읽어 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혹시나 거절을 당해 난처한 상황이 초래될까 걱정했는데 막내 동생뻘 되어 보이는 20 대의 젊은 여선생님은 해맑게 웃으며 흔쾌히 받아주었다. 들어갈 때의 초조함이나 걱정에 비해 나올 때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선생님은 시집 사이에 꽂아 넣어 둔 봉투를 보았는지 아직 보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침묵은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믿었다. 그래서 아이를 더욱 닦달했다. 교내 경시대회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만 하라고 격려와 독려를 반복하며 극성을 부렸다. 사실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다. 과학고도 내가 정해 준 목표였지 아이는 오히려 감성적이라 어학분야에 더 뛰어난 소질과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사내아이라 성인이 되어 진로를 선택할 때를 생각하며 나는 아이가 공대나 의대로 진학하기를 원했고 마침내는 내가 만든 길로 아이를 인도하려 억지를 부렸다. 가끔은 회의를 느끼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라 대신 살아 줄 수도 없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고 있었다.

중점 과외 덕분인지 아이의 수학성적은 크게 향상되었다. 교내 경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제 학교의 추천을 받아 더 큰 규모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테고 그 스펙으로 과학고 진학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며칠 뒤 드디어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교내 경시대회 성적이 나 온 바로 뒤였기에 나는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 없다며 조언을 해주시던 그 학부모의 말이 맞구나 싶었다. 선생님께서 정해준 시간에 맞춰 발걸음도 가볍게 상담실로 갔다. 선생님은 이미 먼저 와 계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변함없는 해맑은 미소가 왜인지 가슴 한편에 와서 콕 박혔다.

“어머니. 시집 잘 읽었어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시였어요. 그래서 저도 감명 깊게 읽은 책 한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겉포장을 하지 않은 한 권의 책을 내밀었다. 책을 받아 든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책의 두께감이 너무 익숙하여 이내 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처음 시집을 포장할 때의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고스란히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더 이상 책이나 봉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몸 둘 바를 몰랐다.

좌불안석이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생님의 해맑은 미소와 단호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어머니. 어머니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민석이는 똑똑한 아이라 제 일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선생님이 주신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상담실을 나올 때 나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고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태를 꼬집고 비판을 하던 내가 바로 그 비판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뉴스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아이에게 늘 정정당당한 승부를 가르쳐왔고 정의롭게 살라고 조언을 했던 나는 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다행히 반듯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 나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다지만 세상엔 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유혹은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물과 세제밖에 닳지 않는 세면대나 욕조도 매일 닦지 않으면 쉽게 벗겨지지 않는 차진 물때가 끼는 것처럼 마음에도 묵은 때가 끼지 않도록 매일 깨끗이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선생님이 주신 책을 살펴보니 책갈피 속엔 내가 넣어 전했던 두툼한 봉투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다. 불현 듯 나는 내가 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면죄를 받고 싶었다. 풀렸던 다리에 다시 힘이 올랐다.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들렀다. 센터장님을 만나 남 몰래 책갈피에 끼워 부정한 마음을 담아 전하려 했던 그 봉투를 새 주인을 찾아 내밀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장님은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나는 여전히 부끄럼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보에 없었던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우산이 없었으므로 비를 콜딱 맞았다. 하지만 속이 시원했다. 아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우려했던 내 부끄러운 행동도 세찬 빗줄기에 씻겨 깨끗해지길 바랐다. **청년  
韓國  
세상**